사순 제 5주일 강론(2019년 4월 7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이야기 하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유명한 스님 한 분이 토굴을 지어서 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행자들과 지인들이 계속 찾아 오는 겁니다. 너무 성가시고 시끄러워서 그 스님은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도를 닦기로 결심합니다.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칩거해서 조용히 좌선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 깊은 산중에 나물캐는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 깊은 산중에 왜 혼자 와서 사십니까?”

 스님이 대답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도를 닦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되묻습니다. “물소리나 새소리는 안시끄럽습니까?”

 스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가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은 생각합니다. ‘물소리, 새소리는 안 시끄러운가? 이 세상 어딘들 시끄럽지 않은 곳이 있겠는가? 산속에 숨어 지낸다고 해서 시끄러움을 벗어날 수는 없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이 조용하고 평화로울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스님은 다시 하산하고, 누가 뭐라 하던간에 자신의 일에만 소신껏 묵묵히 정진하면서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물소리, 새 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라는 그 말이 평생의 스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 지면 행복해 질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욕심을 다 만족시켜줄만한 완벽한 조건이나 환경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첼리사 피어스라는 한 노숙자 여고생이 미국 전국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노숙자 여고생은 노숙자 보호소에서 생활을 했는데, 밤에 그 보호 시설의 불이 커지고 나면, 핸드폰 불빛을 비추어 가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바뀐다고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가장 좋고 나에게 맞는 자리입니다. 매주 주일 미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순시기 잘 지내고 계시죠? 사순 시기도 어느덧 5 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성주간이 시작되고, 그러면 곧 부활입니다.

 사순시기 동안의 매일 독서와 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인간의 회개.

 오늘 사순 다섯 번째 주일 복음도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죄인들과 함께 머무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십니다. 그 죄인들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죄를 일일이 들추지 않습니다. 용서를 청하고 회개하면, 지난 날의 잘못들은 그냥 다 덮어 줍니다. 그리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지난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행복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1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먼 타향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모두들 과거의 전성기와 번영에 대한 기억과 향수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과거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일들,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출애굽의 이야기들,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받아 먹었던 일들,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전성 시대의 이야기들에 대한 향수에만 젖어서 희망 없이 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보면, 옛날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한 미련을 갖고 살기도 하죠.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나갔는데… 자랑도 합니다. 옛날에 잘 나갔던 일들… 옛날에 잘 나갔으면 뭐합니까! 지금 하나도 필요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한다. …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과거는 그냥 지나간 과거이니까 접어두고, 현재를 열심히 살고, 미래에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2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바오로 사도는 과거에 복음을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이지요. 이 얼마나 희망찬 이야기입니까?

 복음도 같은 내용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용서 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희망차게 새 출발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뭡니까?”하고 물어보죠.

 물론 이들의 의도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곤혹스런 질문을 던져서 공격하려는 것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침착하고 태연스럽게 그저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저 한마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계속 땅바닥에 뭔가 쓰십니다.

 무엇을 쓰고 계셨는지 복음서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자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이 복음을 곰곰히 묵상하던 중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서있던 사람들의 과거 잘못들을 이미 알고, 그것들을 낱낱히 다 쓰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니까,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자리를 피해 떠나갑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예수님께 두 눈 부릅뜨고 대들다가 갑자기 조용해 지면서 부끄러움과 민망함에 고개를 떨구고 한사람 한사람씩 그 자리를 뜹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드시고, 그 죄많은 불쌍한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다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가거라. 가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새출발해서 살거라.”

 예수님의 너그러운 그 한마디로, 여인의 과거가 깨끗이 씻어지는 순간입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떨고 있던 그 여인이 과거의 굴욕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미래로 발걸음을 떼는 순간입니다. 놀랍고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떼를 쓰며 달려들던 그 가엾은 여인을, 버림받고, 상처받고, 살아갈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그저 용서해 주십니다. 지난 인생 감추고 싶은 실수들,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잘못들, 일일이 들춰내시며 혼내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부서진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가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보다는, 사랑 받기에 더 급급합니다. 서로 인정해 주기 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더 인정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삽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면 정말 화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과거 잘못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 하나 다 기억하고, 마음 속에 다 쌓아두고 삽니다. 그러니 남는 것은 상처 밖에 없게 되죠. 상처는 덮어야 낫는 법입니다. 자꾸 파면 팔수록, 상처는 덧나고 낫지도 않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커다란 힘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사입니다. 서로 그만 좀 미워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과거의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새출발해서 잘 살아가라는 희망의 메세지를,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미사입니다.

 어느덧 사순 시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와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다같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한 새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활을 맞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